

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고다와루(拘る)

일본 제조업의 작업현장에서 제품의 완벽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술자들은 특별한 노무관리 때문이 아니라, 자발적의지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한 가지 일에 집념을 보이는 고다와루 성향을 보임

□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

- 무엇인가에 집요함을 보이고 결국에 끝을 봐야 손을 놓는 모습을 일본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
- 얼마이는 것 같지만 성급하지 않고 대충 끝내지 않는 까다로움은 작업현장에서의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로 이어짐
-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성향을 적절하게 표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고다와루(拘る)임

□ 장인정신과 고다와루

-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장인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술자들의 고다와루 성향에서 찾아 볼 수 있음
- 가업을 물려받아 한 가지 일에 파고드는 장인정신이 오늘날 일본 기술력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움
-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상인(기업인)을 많이 배출한 오사카 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

- * 오사카 상인들의 투철한 신조는 ‘하늘이 두 쪽이 나도 노렌(暖簾)은 지킨다’ 임.
 - * 노렌은 상점 입구의 처마 끝이나 점포입구에 치는 무명천으로 만든 막을 말하는데, 초밥집, 우동집, 소바집 등 일본전통 음식점들은 노렌을 걸어놓고 자신들만의 철학이 담긴 음식을 판다고 굳게 믿음
 - * 노렌 속에 깊이 새겨진 뜻은 무엇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장인정신의 표현임
 - * 이것저것 옮겨가며 깊이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에 매달려 대를 이어 가며 한 우물을 파는 집요하리만큼 억척스러운 고집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음
 - *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들은 점포 앞에 걸린 노렌을 보면 그 점포의 신용을 읽을 수 있고, 그러한 믿음은 또 다시 그 곳을 찾게 하는 힘이 됨
-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큰 성과를 냄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의 사례는 수 없이 많음
- 몇 해 전 우리나라의 모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추천하며 화제를 모았던 일본 만화가 ‘미스터 초밥왕’이었음
 - * 이 만화는 신참 요리사인 ‘쇼타’라는 주인공이 가업인 초밥집을 이어받아 당대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음
 - *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인 초밥을 만드는데 들이는 애정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장인정신이 현대 기업 경영에 큰 교훈이 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추천 이유였음
 - 1630년에 설립한 간장제조회사 기코망(キッコーマン)은 간장공장 에서 출발하여 조미료 사업으로 사세를 확장했고 지금은 바이오 테크 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음
 - 기코망의 성공에는 집안 대대로 발전시켜온 효모 발효기술이 밑바탕이 되었으나, 모진 풍파를 견디며 약400년 동안 사업을 대물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시대변화에 대응하며 기본에 충실해 온 고다와루 근성이 있었기 때문임

- 대를 이어 전통을 지켜가는 가게를 보통 일본에서는 시니세(老舗)라고 하며, 이들 점포들이 경제대국 일본의 동력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음
- 새 것의 홍수 속에 전통을 고집하며 한 분야에 집착해 온 결과 얻어지는 명예일지도 모름
- 왜냐하면 시니세로 불리는 곳은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일본이라 할지라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임

□ ‘잃어버린 20년’ 이 되지 않기 위해서

- 지난 1990년대 ‘잃어버린 10년’ 에 이어 반짝 경기회복 기미를 보였던 일본경제가 다시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‘잃어버린 20년’ 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- ‘잃어버린 10년’ 에서 벗어난 듯 했던 지난 몇 년 사이 불황극복의 요인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연구는 그 이유가 일본의 탄탄한 기술력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었음
- 일본 제조업이 21세기에 들어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는 제품에 혼을 불어넣으며 작업현장에서 예술에 가까운 기술력을 갈고 닦았던 장인들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
- 한 분야에 까다롭게 얽매어 일말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으며 몰두하는 기술자와 쇼쿠닌(職人, 장인)들은 제조왕국 신화의 부활을 기다리고 작업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음
-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부품은 물론 정밀화학, 부품 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양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